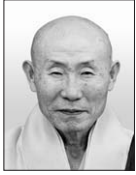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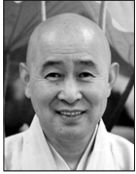


일주문



지장기도법회
봉화 촉서사 선원장 무어 스님은 6월 28일 군포 법해사에서 지장기도법회 초청법사로 참석해 법문했다.



미얀마중국 구호금 1000만원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6월 23일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 성금 1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백중까지 매주 본사 주지 초청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란분절(백중) 49일 지장기도대법회'를 열고 매주 본사 주지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53)982-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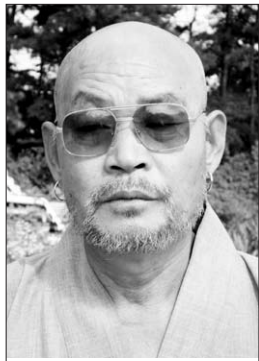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보은 법주사 기획국장 현관 스님은 6월 20일 법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5교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노인복지 함께 할 불자 찾습니다”

‘달마노인복지회’ 운영하는 달마스님

“불가에서 평생 지냈으니 죽기 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지만, 원력만큼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 있더라”는 스님은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이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임면)가 6월 27일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0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로 이전했다. (02)734-8050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낯은 조국은 한국, 길러준 나라는 인도”

소설 ‘광장’ 주인공 卍 한국불교회 현동화 회장

“나를 낯은 조국은 한국이고, 방황하는 나를 받아준 나라가 인도입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에 인도성지 한국사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실존인물로 자서전 제목처럼 ‘격랑의 세월 인도에 닦을 내리고’ 살아온 현동화 회장(76·재인도한인협회 고문)이 한국을 찾았다.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현동화 회장은 인민군 중위로 참전했다가 포로 생활 후 석방 때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을 택해 인도에 정착했다.

현동화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현동화 회장은 “미군 폭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부상 입고 누워있는 내 몸과 근관학교 동지들이 나를 두고 이야기 나누는 광경이 보였다.”

현 회장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북한에서 교육받은 유폴론을 부정하게 됐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칠 수 없었던 그는 인도에서 가톨릭 영세를 받기도 했다. 현동화 회장은 “인도인 주교의 압부병 모습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다. 1980년대 인도 북부 불교 유적지를 찾았을 때 페허로 남은 무유무상(無爲無常)함에 가슴이 찡해지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다.

현동화 회장은 “유물사관 때문인지 조직화된 종교에는 강한 거부감이 있다. 종교는 자신의 신념, 마음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든 경험 때문에 유물론자지만 전생과 내생을 믿게 됐다”는 현 회장은 인도에 있는 많은 티베트 승려들과 교분을 쌓았다.

현 회장은 2001년 아요디아 시(市)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48년 인도 아유타국에서 한국을 찾아 불교를 전래한 가야국 김수로왕 왕비 허황옥 기념비를 세우는데 혁혁한 도움을 줬다.

한때 현동화 회장 자신도 무국자였던 탓일까? 현 회장은 “티베트 난민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얼마 전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이 컨테이너 5개 가득 옷을 보냈을 때 통관을 못해 전해지지 못하던 것을 도와 다름살라에 전한 것도 현동화 회장이었다.

현재 인도성지에 불사중인 월우 스님(고려사), 도웅 스님(녹야원), 성관 스님(대한사)도 “현동화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불사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인도에서 55년을 기업을 일구며 평생을 살



아은 현동화 회장의 남은 계획은 인도성지에 여법한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현 회장은 “월우 스님 등을 돕기 위해 베이징을 필히 찾아가달라”고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윤필암을 찾은 것이 첫 한국사찰 방문일 만큼 한국불교에 문외한이라는 현동화 회장, 하지만 그는 인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보현보살이었다.

“일본, 미얀마, 베트남 등 불교국가 중 한국사찰만 인도성지에 없었습니다. 인도성지에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한국불교 위상 문제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전폭적 지지와 관심 바랍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가톨릭 손잡고 음악회 열어



불교와 가톨릭이 함께한 ‘초여름밤의 음악회’가 6월 14일 진주시 하대동 (재)노인요양병원 프란체스코의집 광장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청운경남남부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증편 스님 초청법회 봉행



전북불교회관은 6월 22일 중앙승가대 총장 증편 스님을 초청해 ‘참된 주인이 되자’는 주제로 법회를 봉행했다. 매일 넷째 주 일요일 열리는 가족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전북부지사장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 쌀 지원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장 장곡)와 결연을 맺은 대전 탄방초등학교 어린이들이 6월 23일 복지관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쌀 1012kg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탄방초등학교에서 6월 18-20일 모은 것이다. 손효선기자

명원문화재단 국민대학교와 MO.U. 체결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과 국민대학교(총장 이상우)는 한국전통문화와 전통 문명의 교육·연구·보급을 위해 6월 26일 국민대학교 총장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정규 교육과정 신설, 명원인숙관 지원, 교육과정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강진기자

강북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시니어 봉사클럽 봉은사 연화대학과 함께 이용장애인 및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급식에서 봉은사연화대학에서 기금 100만 원을 후원하고 회원 15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김강진기자

“위덕대등 자율 경영으로 불교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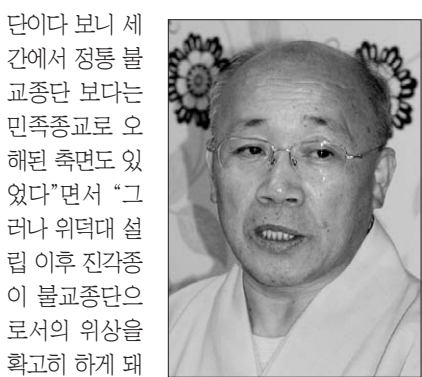
회당학원 혜정 신임 이사장

“위덕대 등 진각종립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으로 불교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1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혜정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는 “교육전문가들이 총장과 교장선생님들이 종립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월 16일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혜정 정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 산하 위덕대학교와 진선여중·고, 대구 심인중·고의 운영을 법인이 관리하는 지원 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의 현황과 관련, “진각종은 밀교종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종



김성우 기자

성덕 스님 입적

대구 동화사 前 주지

대구 동화사 前 주지 성덕 스님이 6월 24일 새벽 3시경 칠곡 송림사에서 세수 65, 법랍 53세로 입적했다.



성덕 스님은 1958년 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66년 동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스님은 조계종 제10대, 11대 중앙종회의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을 역임하고 청도 적전사, 대구 대성사, 칠곡 송림사 주지를 맡아왔다. 영결식은 26일 오전 송림사에서, 다비식은 동화사 다비장에서 거행했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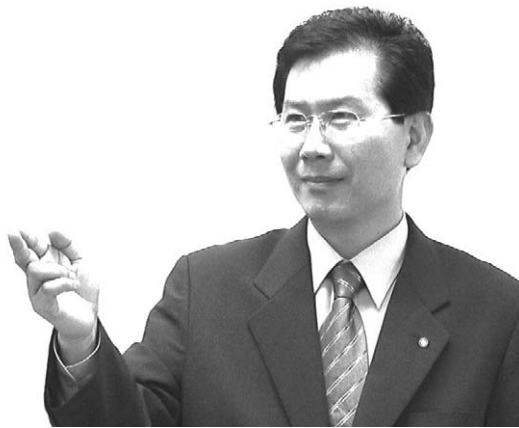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 심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지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재, 최면요법 등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1544-2741 대전 042)222-0737 홈페이지: www.hypnos114.com

故 金在日 法師 東山般若會葬에 찾아주시고, 크나 큰 恩惠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歸依 三寶하옵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셨고 활기차게 활동하셨던 아름다운 法友, 김재일 法師님! 법사님은 진정한 재가불자, 부처님의 상속자이셨습니다. 법사님께서 교계 사부대중들과 함께 이루신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과 그 佛事들이 길이 전승됨은 물론, 한국불교를 위해 “늘 새로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故 김재일 법사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친 것은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덕택입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드려야 도리어오나, 총총히 서신으로 대신하오니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이미터볼

大衆傳法 教學振興 德山 金在日法師 49세 일정을 알립니다. (문의: ☎ 02)732-1206)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Time, and Location. Rows include dates from June 24 to August 5.

Table with 3 columns: Position, Name, and Name. Lists various roles and names associated with the funeral service.

동산반야회 임직원 일동 미망인 전연화 딸 김수미 아들 김동선 사위 김건영